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II. 주는 사랑(Giving Love)을 본받읍시다 (5:2)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일 뿐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는 사랑을 보여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일반은총만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십자가로 설명되듯 주는 사랑도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만이 아니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빌2:5 - 10).

사랑은 무엇인가를 준다던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삶 속에서 참된 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III. 산 사랑 (Living Love)을 본받읍시다(5:2)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랑의 생활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산 사랑이란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엡 4장)

거짓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은 버리고 진실되게 말하며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4:25, 5:4-7, 5:29). 감정적인 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5:26). 도적질 하지 말고, 구제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5:28).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4:31-32)이 산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을 산 사랑이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쉽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완전치 못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성도, 용서할 힘도, 주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절을 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받는 자(Imitator)’ 라는 뜻의 어원을 살피면 ‘가깝게 베끼는 자, 흉내 내는 자’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말씀을 반복하여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해야 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 주는 사랑, 행동으로 나타난 살아 있는 영

1.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	함	께
성시 시편133편 1절 - 3절	인	도	자
찬송 460장	다	함	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에베소서 5장 1절 - 14절	인	도	자
설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인	도	자
찬송 404장	다	함	께
주기도문	다	함	께

2. 메시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 5장 1절 - 14절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5:1)는 수준 높은 요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을 수 있으며,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유일성, 전지성, 편재성(무소부재) 등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공의, 진실, 선함, 사랑, 동정심, 부드러움, 용서 등 인간도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훌륭한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고, 딸들이 자랑스런 어머니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I. 용서하시는 사랑(Forgiving Love)을 본받읍시다 (4:32)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어느 청명한 날의 일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진 주검은, 분명 조카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달 전까지 내결에서 근실히 일하던 청년이었으며, 집안에서는 밝은 성격과 끈은 성품으로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동이었습니니다. 새벽길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믿지 못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사실 앞에서 자식을 잃은 내 누님의 절규와 오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고통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섰습니다.

천봉지통라 했던가요? 젊은 생애를 마감한 조카와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남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묻기도 해 보았습니다.

조카는 교회학교의 교사도 하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실적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상사들과의 술자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한 두번 어울리다가 점차 불신자와 다름없는 습관들이 늘어가던 중

손 잡고 갑시다, 떠내려가지 않게

오정수 (장로, 새가족부 부장)

이 세상의 삶은 혼자 거슬러 올라가기에 때로 벅찰 때가 많습니다. 젊음의 힘으로, 의지로, 도전하고 분투해도 쉬지않고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잠시만 멈추어 서있으려 해도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할 만큼 세파는 강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보려는 우리 모두는 손잡고 갑시다. 떠내려가지 않게...

이었습니다. 사고나던 날도 무슨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조카는 그만 세파에 밀려 슬그머니 떠내려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해 불어오는 세파는 혼자 거슬러 올라가기에 때로 벅찰 때가 많습니다. 젊음의 힘으로, 의지로, 도전하고 분투해도 쉬

지않고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잠시만 멈추어 서있으려 해도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할 만큼 세파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잡고 함께 갈 친구가 필요합니다. 떠내려가려할 때 붙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친구를 붙들어 떠내려가는 것에서 구

해내어야 합니다. 악몽같은 조카의 사고 앞에서 우리교회 교우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반갑게 만나는 교우들,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하며 큰 힘을 주는 다락방 식구들을 볼 때면 비록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세상을 사는 순례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센 세파에 맞설 용기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써 보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보려는 우리 모두는 손잡고 갑시다. 떠내려가지 않게...

선교지 소식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시며 날마다 채 부족함을 위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동역자되신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올립니다.

클루바 병원에서 사역

그간 케냐에서 언어훈련을 받은 후 이루아(Arua)의 클루바(Kuluba)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작은 영혼들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줄곧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말라리아, 폐렴, 빈혈 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이들의 죽음을 단순히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대하는 가운데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제 죽음을 맞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현지 부족어만이 통용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야 할지요. 제 의지대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평화를!

우간다 대통령 선출이 96년 4월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통령인 위웨리 르세베니의 임기가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나라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랍과 인접한 수단으로부터의 위협이 국경지역에 계속 되어 군사력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우간다의 평화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진보를!

언어 문제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특별히 소아과 병동에서는 록바리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병원사역자들이 영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2.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적절한 전도방법을 알게 하소서.
3. 우간다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4.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소서.

우간다에서 이미경

▶명언

신 양이란 정보나 지식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자발적인 순종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되는 느낌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는 태도이다. - 마틴 루터 -

✧ 순례자 컬럼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망국의 한에 통곡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뜻있는 청년들은 풀무밭 속에 던지움을 받으면서까지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했다. 망국의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다. 선지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

조선왕조를 망하게 한 것은 당쟁과 하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들을 반복하며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 백성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보다는 그 도덕수준이 조금은 높아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주여, 이 질은 암흑을 몰아낼 새 아침은 언제니이까?"

■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100교회 운동'에 대한 성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가운데 2월 14일 현재 100교회를 넘어서서 107교회와의 결연이 확정되었다.

남선교회가 12교회, 여전도회가 28교회, 다락방이 10교회, 찬양대가 2교회, 당회소속기관 중에서 3교회, 교회학교가 2교회, 개인 혹은 가정이 52교회에 후원하기로 작정한 올해의 100교회운동은 2월 14일로 후원자와 농어촌교회와의 결연을 마감하였다.

▶ 추가 및 정정

1996년 2월 14일 현재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02	대전서	명한반석	임희수(전)	김재우
103	목포	미교	장철수(목)	사랑의 회
104	진주	추도	오윤주(목)	에스터 2
105	경안	모산	임찬세(전)	권사회
106	충남	산경리	위성상(전)	에스터 4전도회
107	대전서	새뫼	김억일(전)	마리아3, 소망부
42	평북	마장	주추신(목)	마리아2, 4전도회



2월 학습·세례식

방학을 맞은 중·고등 학생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느 때보다 많이 참석했던 2월 학습 세례식. 친지와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잊지 못할 세례식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입교하기 전, 성경일독을 하려고 지난 주간 내내 500여 장의 성경을 읽은 친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교육과 문답에 철저히 참석하기 위해 3일간 휴가를 낸 직장인도 있었고 철야기도로 준비한 성도도 있었다. 세례식에 동참한 성도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던 때의 결심을 다시금 기억해 보며 물세례를 받는 이들이 성령세례도 함께 받기를 기원하였다.

김동우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수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축하합니다"라는 인사 대신 "순교하십시오"라는 인사를 받는다고 한다. 스테반처럼 순교하는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스테반회'라 이름한 우리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로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내실을 기해 온 스테반회는 요즈음 주일 찬양예배가 마치면 빗자루를 들고 예배실 청소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누구인들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없으리요 마는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다니는 주일 저녁, 그것도 하루 종일 각 부서에서 힘껏 봉사를 하고 나서 거르지 않고 청소를 하기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돌아보면 예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다. 교회당 바깥에서 여름이면 따가운 햇볕을, 겨울이면 찬바람과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차량관리위원장들. 경건한 예배를 위해 다리가 붓도록 서 있어야 하는 붉은색 유니폼의 안내위원들. 토요일 새벽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예배실 청소며 커튼을 세탁하는 일까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다. 일년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수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두 분 여집사님께 "추우신데 물청소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땀으로 온 몸이 젖는 여름보다는 훨씬 낫네요."라고 웃으시며 대답. 만약 이들 봉사자들의 노고가 빠진다면 많은 사람이 모임 때마다 혼란과 불편함이 따를 것임은 분명하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우리도 동참해보면 어떨까?

설날 연휴 비상연락

우리교회 교역자들은 설날 연휴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도움이 요청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직순서를 정하고 교회를 지키기로 했다. 유사시, 일차적으로 모든 사항은 교회로 통보하고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교회 ☎ 517-7651 ~ 5 (팩스: 512-1225)

▶ 교역자 연락처 ()안은 호출기 번호

- 임진태 목사: 516-0392 (012-217-3404)
- 원 호 목사: 516-0391 (012-217-3405)
- 이순환 목사: 3452-8856 (012-217-3407)
- 김명헌 목사: 3443-4082 (012-291-8956)
- 박귀환 목사: 242-8407 (012-291-8958)
- 박종상 교역사: 458-3642 (012-291-8957)

■ 목회자동정 ■ * 박종상 교역사(초등부 지도)는 15일(목) 장신대원을 졸업하였다.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9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 / 1996년 2월 26일(월) ~ 3월 25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2. 가족과 친척, 친지들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3. 해외의 선교사와 농어촌 자매교회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